

## 기적 #9: 자연(때때로)

연사: 알렉스 레슬러

2023년 8월 20일

도입부: 희망으로 넘쳐

쉬는 시간... 일상과 거리를 두다 보니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가족,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한 나의 기도였습니다...

**13**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13**

기쁨. 평화. 신뢰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

이번 주에 저는 Lee Warren 박사와의 팟캐스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는 뇌 외과 의사, 신경 과학자 및 예수의 추종자입니다. 그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는 이라크 군 병원의 응급 뇌 외과 의사였으며 집에 돌아온 후 비극적인 사고로 19 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주제를 책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에 어떻게 치유를 시작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당신에게 약간의 평화를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의 상실감에 공감할 수 없다면 그가 말하는 상실감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의 삶이 그 아래에 견고한 무언가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당신이 잠시 추락하게 될 모든 사람들처럼, 당신은 의심을 품고 화를 낼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모두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바닥은 당신에게 착지할 곳을 제공하고 당신은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파괴적인 사건이 있었고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신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있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작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희망을 줄 친구의 적절한 시기에 문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작은 빛을 볼 수 있었던 작은 순간들"

여기가 저를 사로잡은 핵심이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느낄 때에도,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화학 물질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을 압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약속도 사실이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제 전환: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계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사랑과 보살핌에서 동기가 부여된 신성한 권능의 표현.

예수님은 그의 기적에 대해 무작위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미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처럼. 표면적으로 그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그들은 또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리즈가 "그때 그리고 지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이야기에 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Dr. Warren이 말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MVMT 1: 혼돈에서 목적, 의미 및 아름다움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자연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현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그가 자연과 상호 작용하고 그들에 대한 그의 힘과 권위를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중요한 약간의 배경이 있습니다 .

혼돈의 물

성경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천국" - 우리 위의 하늘

"지구" - 우리 아래의 땅

이 선은 우주에서 일어날 일을 요약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니…” - 창세기 1:2a

*Tohu-wa-bohu* - "무질서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이것은 창조 전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경 NIV는 그것을 "형태가 없는", "비어 있는"으로 번역합니다.

요점: 성경 저자에게 "비존재"/는 "목적 없음" 및 "질서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은 같은 내용을 강화합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 창세기 1:2b

어떤 번역은 이것을 "깊은 심연"이라고 부릅니다(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 창세기 1:2c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혼돈에 질서를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는 어둠 속에 바로 거기에 현존하십니다. 그 혼돈의 물 에는 질서도 주인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3일 동안 그는 정돈되지 않은 어둠을 3개의 정돈된 영역으로 나눕니다.

다음 3일 동안 그는 생물과 함께 공간에 거주합니다.

창조의 정점에서 그는 인류를 목적, 질서, 아름다움, 의미로 가득 찬 세상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혼돈의 질서이시다.

그분만이 "정렬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 것을 취하실 수 있으며

목적

아름다움

주문하다

의미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인간 마음의 깊은 외침입니다.

목적을 가지기 위해.

창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인생이 단지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당신의 삶이 의미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을 찾는 것은 당신의 깊은 내면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을 향하더라도.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잘못된 사람과 장소에서 목적, 질서, 아름다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직업, 관계, 물건, 사회적 지위,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기준, 성공, 도취, 컬트 또는 종교, 정치, 스포츠 및 취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 구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혼돈을 가져다가 삶과 가능성으로 총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로 만드셨는지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는 결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연애편지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혼돈 위에 머물며 움직일 준비가 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혼돈 속으로 그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안으로 초대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34:8

심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새/구속된 창조에 대한 그림을 볼 때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수역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징주의입니다.

The Seas 또는 the Dark Abyss, Sheol, the realm of the dead, 거기에 사용된 온갖 이름들... 이곳은 지상의 반역, 혼돈, 위험의 진원지로 생각되었습니다. 계시록과 예언자 다니엘의 "짐승"이 나타나 피조물을 파괴한 것은 바다에서입니다. 혼돈의 물은 진정한 영적 악의 근원이자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을 명령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혼돈의 힘을 물리칩니다. 그들은 단번에 처리될 바다의 세력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왜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드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1. 오직 하나님만이 혼돈의 물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2. 깊은 심연은 카오스 몬스터-지옥의 본거지로 여겨졌다.

주제 전환: 왜 배경인가요? 잘만되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은 당신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었으며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생각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진실'이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MVMT 2: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 물 위를 걸으시다 7**

**16** 저물매 제자들이 호수로 내려가서 **17**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니라 지금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18** 강한 바람이 불고 물이 거칠어졌습니다. **19** 그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20**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 그들이 기꺼이 예수를 배에 오르게 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해안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6v16-21**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종종 "호수"라고도 함)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일부는 직업이 어부였으며 그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깊은 곳으로 자주 가지 않았고 수영하는 법을 몰랐을 가능성이 큼니다.

기억하세요... 유대인의 깊은 생각에는 바다가 위험하고 거칠고 혼란스러운 힘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종종 구약성경에서 “깊음”은 지옥 그 자체로 가는 관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깊음의 혼돈을 길들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유일한 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둘러싼 지형과 관련이 있으며 전선이 눈에 띄지 않게 얼마나 빨리 굴러들어올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바다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 한가운데, 작은 배를 타고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둠의 왕국이 그들 주위에 다가오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수 있기 오래 전에 제자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

**47** 그날 밤,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그분은 혼자 육지에 계셨습니다. **48**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동이 트기 직전에 그는 호수 위를 걸으며 그들에게 나갔다. **49** 예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다. **50** 그들이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다 . - 마가복음 **6:47-49**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오래 전에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과의 연관성은 다소 명백하지만 저는 큰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의 폭풍우 속에서도 저는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훨씬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하며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폭풍을 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마른 해안의 안락함을 떠나 습하고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에 갇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일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시야는 이미 어려우며, 파도의  
흥망성쇠...

우리는 그들이 겁에 질린 것을 봅니다... 당신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에 들어오실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예수의 제자들이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문적인 길잡이들에게 그들의 전문 지식을 쓸모없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배는 이제 구명보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길이 동서남북인지 아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노를 젓고 있지만 헛된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계절에는 우리의 균형도 잃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자존감, 가치,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것 중 일부가 모두 제거되고 있습니다.

폭풍은 제자 들에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벗겨지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서로의 삶, 예수님이었습니다.

이행:

응답: 하늘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이 결코 같은 방식으로 바다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그의 기적에서 그는 그들이 그것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한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대표했던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그때 창조자의 혼돈을 길들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한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분리하기 위해 신이 주신 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예수님은 다리를 삼아 이방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한때 죽음을 상징하던 것이 지금은 삶이다.

구속되었습니다. 혼돈과 파괴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쏟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최악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파괴하기 위해 함께 결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들은 실제로 궁극적인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8** 이 말씀을 이 세대의 관원은 깨닫는 자가 없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 고린도전서 **1장. 2:8**

죽음이 흑암 세력의 최대 무기라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생으로. 죽음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 그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기뻐합니다.

**54** “죽음이 승리의 삼킨 바 되었도다.”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58**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아무것도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니라 -**1 Cor. 15:54-58**

그는 당신이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수 없는 죽음. 당신도 그와 같이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그 결정일 것입니다. 나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에게 나를 구해 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찾으면 너희가 만날 것이요

아마도 당신은 이미 그 최종 결정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폭풍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고 당신은 "굳건히 서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야기 속의 무언가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반영합니다. 13

우리는 이제 실제로 집에 가져가서 매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모방할 것입니다.

불이 꺼지고, 별이 밝아지고, 열쇠, 시편 읽기...

하나님이 당신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메시지가 자연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챙김(Mindful) - 마음을 불러일으키다. 고려하다. 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왜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그가 우리를 그렇게 많이 돌봐 줄 우리는 누구입니까?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설정

하늘에서.

**2** 어린이와 유아의 칭찬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적들에 대한 요새를 구축,

적과 복수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3** 내가 당신의 하늘을 생각할 때,

당신의 손가락의 일,

달과 별들,

당신이 제자리에 설정,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당신이 그들을 돌보는 인간?

**5**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당신은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7** 모든 양 떼와 소 떼와

그리고 야생의 동물들,

**8** 하늘의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바다의 길을 헤엄치는 모든 것.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1-9**